신임 본사주지협 회장에 경우 스님

17일 68차 회의서 만장일치로
경우 스님 "종단과 가교 역할"
'재적 본사 전적법' 의견 교류
우려 제기에 차기서 논의키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1월 17일 통도사 원통방에서 제68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를 진행했다.


신임 회장 경우 스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차기 회장에 고창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추대됐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1월 17일 통도사 원통방에서 제68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임기 만료된 정묵 스님(수덕사 주지) 후임으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부회장 등 임원 임명은 차기 회장에게 위임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신임 회장 임기는 내년 1월부터다.

선출 직후 경우 스님은 "종단과 교구본사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며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총 25개 교구본사 가운데 20명의 본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해 성원됐다. 회의는 △재적본사 전적 특별법 제정안 △불교계(사찰) 국고보조금 신청 관련 협조 요청 △도난 불교문화재 은닉 사범 검거 및 회수 진행 경과가 주요보고 됐다. 보고 후에는 주지 스님들의 의견 수렴 및 방안 논의도 이어졌다.

'재적본사 전적 특별법 제정안'은 스님들이 본사 재적 등록시 행정 오류나 본인의 실수로 재적본사가 은사 스님과 사형사제와 다른 경우 이동이 가능하도록 돕는 특별법이다. 제219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발의 되었으며 상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한 후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우선 총무원 총무부는 '자신의 은사 및 사형사제와 다른 재적본사를 취적한 승려에게 재적 교구본사 및 전입 교구본사의 동의를 얻어 한시적으로 전적을 허용함(제1조)'을 밝혔고 전적 심사를 위한 '재적본사 전적심사위원회' 구성(제3조) 등 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총무원에 따르면 재적본사가 은사 스님과 다른 스님은 3천853명이며 약 28.5%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마곡사만 하더라도 봉선사에서 넘어온 스님이 많아 여러 문제가 야기된다. 각 본사마다 입장이 다른 부분이라 심도 깊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의견 수렴을 위해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총무원 기획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불교 관련 제개정 추진 법령 등을 보고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이 겪는 토지보전부담금 문제를 해소하고, 전통 목조건축물인 사찰의 특성상 현행법의 규모나 면적 제한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 등이다. 아울러 문화재 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보고에서는 총무원 문화부가 '도난 불교문화재 은닉 사범 검거 및 회수 진행경과'를 설명했다. 문화부는 "도난 문화재는 43건의 도난사건으로 95점의 문화재와 관련해 도난당했으나 지속적인 추적과 관리로 성보를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기타 내용으로는 사찰 방재 시스템과 불교성전, 교통표지판 개선안도 논의 됐다.

한편, 제69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내년 1월 18~19일 장성 백양사에서 열리며 본회의는 19일 오전 10시이다.

전계대화상 '추천' 원로회의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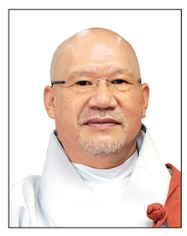
11월 26일 제 65차 회의
우경스님 원로의원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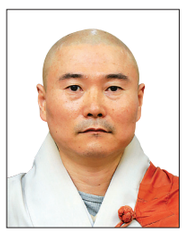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는 11월 2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65차 회의를 열고 신임 전계대화상 추천과 원로의원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신임 전계대화상 추천은 오는 12월 14일로 현 전계대화상 무봉 성우 대종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뤄진다. 전계대화상은 계법을 전하는 종단 최고의 계사로 계단의 설치, 운영, 수계식 등을 관장하며 원로회의의 추천으로 종정예하가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이번 원로회의에서는 신임 원로의원 선출과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도 이뤄진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는 11월 12일 진행된 제219회 정기회에서 신임 원로의원에 제주 관음사 회주 우경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했으며 대종사 · 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로 확정된 30명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원로의원은 원로회의법에 따라 중앙종회 추천으로 원로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대종사 · 명사 법계는 법계법에 따라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를 거쳐 종정예하가 품서하게 된다.

신성민 기자


현법 스님


선도 스님


정오 스님


정관 스님

불교신문사 주간 현법 스님 임명

원행 스님, 11월 18일 임명장 수여해
사회국장 선도 · 상임감찰 정오 스님
직할 교구 소림사 주지에 정관 스님

불교신문사 주간에 현법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에 선도 스님이, 호법부 상임감찰에는 정오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1월 18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불교신문사 주간과 사회국장, 상임감찰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불교신문사 주간 현법 스님은 이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수계했으며, 개태사, 보승사 주지 및 13대, 16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문화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김포 용화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사회국장 선도 스님은 태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7년 수계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했으며, 학림사 오등선원, 팔공총림 선원, 직지사 천불선원에서 안거수행했다.

상임감찰 정오 스님은 진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2003년 수계했다. 윤필암, 대원사, 보현사, 법화사 주지 및 총무원 호법부 호법과장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원행 스님은 이날 직할교구 소림사 주지에 정관 스님을 임명했다. 정관 스님은 혜원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사미계)했으며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소임을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마음과 행동으로 국민 행복하게 하라"

제 21대 국회 정각회 개원 · 회장 취임 법회
이원욱회장 "화합과 상생하는 국회 만들 터"



국회정각회는 11월18일 조계사 대웅전서 제21대 정각회 개원 및 신임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구현하여 대한민국을 자비희사가 흘러넘치는 극락정토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회 정각회(회장 이원욱)가 11월 18일 오전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21대 국회 정각회 개원 및 신임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21대 국회 정각회는 지난 6월 29일 창립됐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원법회가 지연돼 이날 봉행하게 됐다.

이원욱 정각회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취임사를 통해 "국회 불자의원들을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영광과 책임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면서 "정쟁이 격해질 때마다 국회 정각회가 나서 자비심으로 화합하고 함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국회 신뢰도는 모든 기관 중 최하위"라면서 "국회 정각회장으로서 국회 정각회가 앞장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화쟁의 가치를 통해 상생의 정치, 봉사의 정치를 구현하는 중심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명법사로 나선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법어를 통해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불교에서는 행복이 가득해서 고통이 전혀 없는 세상을 극락이라고 이름하며, 정토라고도 가르친다"면서 "우리 모두는 정파나 주의를 떠나 국민에게 극락정토를 구현시켜야 하며, 협치를 통하여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조단경〉의 '석공덕정토'의 구절을 인용한 원행 스님은 "평등한 마음과 올곧은 행동, 은혜로운 마음과 의로운 뜻, 그리고 겸양과 인내로써 자신을 다스리고 주변과 화합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주변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면서 "국회 정각회는 이와 같은 마음과 행동으로 스스로 행복을 이루고 온 국민을 행복하게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정각회는 이헌승 부회장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수행 · 호법 · 화쟁 · 원력 보살 되겠다"고 서원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구현하여 대한민국을 자비희사가 흘러넘치는 극락정토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등이, 정각회에서는 주호영, 이헌승, 조명희, 이수진, 이용, 유정주, 김영배, 양정숙, 김병주, 소병철, 이정문, 김형동, 황보승희, 민병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봉선사, '친절온도 1도 높이기' 교육

남양주 봉선사(주지 초격)는 11월 13일 경내 청풍루에서 종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친절마인드 교육 '봉선사 친정온도 1도 높이기'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어떠한 생명이던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부처님 말씀은 불교의 서비스 정신과 맥을 함께한다. 내가 존중받으려면 내가 먼저 남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곧 서비스 정신"이라고 교육의 의미를 설명했다.

강의는 고객만족(CS) 전문강사인 남원선 강사가 맡아 진행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교육은 친절한 응대방법과 신도들 맞이 · 배웅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송지희 기자

圓 사단법인 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범해당 대화 대종사 寂

귀의 삼보하옵니다.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범해당 대화 대종사께서 불기 2564(2020)년 11월 11일(수) 오전 9시 40분 법랍 68세, 세수 82세로 원적에 드셨습니다.
11월 13일 오전 10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종단장으로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먼 길 마다않고 찾아와주신 각계 인사 여러분들께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올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지면으로 인사올림을 혜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큰스님의 49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 하오니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위원장 총무원장 만혁

부 위 원 장 법성

위 원 자관, 정오, 용담, 심공

문 도 회 원각, 혜공, 혜원, 지호, 지명, 해월, 진묘, 해산, 도광, 지선, 향련, 수연, 대운, 만공, 지명, 대월, 지천, 무공, 서호, 현문, 성준, 수해, 혜영, 법성

원 로 해담, 대월, 관곤, 대봉, 대광, 지선

■종정스님 행장보고

1940. 1. 4 충남 금산군 금산면 부곡리에서 부 이재봉, 모 김부녀씨의 5남 2녀 중 오남으로 출생
1958. 3. 18 태고사에서 행자로 입산
1960. 1. 4 개운사에서 경보사를 은사계사로 수계득도
1963. 7. 15 개운사에서 사교과 졸업
1966. 7. 15 개운사에서 대교과 졸업
1967. 4. 1 개운사 주지 취임
1967. 7. 15 개운사에서 하안거 성만
1968. 1. 15 개운사에서 동안거 성만
1968. 7. 15 개운사에서 하안거 성만
1969. 1. 15 개운사에서 동안거 성만
1979. 9. 18 영화사에서 석천화상을 법사로 입실건당
1984. 7. 1 연화정사 창건 주지 취임
1984. 7. 15 종사 법계 품수
1989. 9. 9 본원종 중앙종회 부의장 피선
1997. 8. 15 대종사 법계 품수
1997. 11. 7 본원종 제3대 총무원장 취임
2001. 11.19 본원종 제4대 총무원장 취임
2005. 9. 9 본원종 제5대 총무원장 취임
2007. 6. 15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이사 취임
2009. 9. 9 본원종 제5대 종정 취임
2013. 9. 9 본원종 제6대 종정 재추대

■49재 일정

반혼제	불기 2564(2020)년 11월 13일
초재일	불기 2564(2020)년 11월 17일
이재일	불기 2564(2020)년 11월 24일
삼재일	불기 2564(2020)년 12월 01일
사재일	불기 2564(2020)년 12월 08일
오재일	불기 2564(2020)년 12월 15일
육재일	불기 2564(2020)년 12월 22일
49재일	불기 2564(2020)년 12월 29일

•장소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7-6 연화정사
•문의 : 총무원장 만혁 010-9996-6340

(사)대승불교본원종 범해당 대화 대종사 장례위원회